



## 세번째 이야기

#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신앙 에세이①]

요즘 진솔한 찬양들이 많은데 특히 마음이 가는 찬양이 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 3:20-21)’



이제 8년 차 케냐 선교사로 가끔 교회에 초청 되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선교사에 대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되었나? 어떻게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아프리카 케냐로 가게 되었나? 라는 질문에 답을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 하다가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에 차서 찬양하고 있는 구절이다.

나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 지금 8년 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선교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선교 나가기 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하나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잘 안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었던 것들이 더 잘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와 방법이 가장 최선임을 깨달은 것이다.



기도 중 내가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 나를 선교사로 보내심을 믿고 영어를 준비하되 가르칠 정도로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우선, 가정 선교사로서 먼저 가정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결국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복음을 받으셨다. 또한 준비의 하나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08년 이때인가 싶어 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걸 알고 실망한 채 6년을 더 기다렸다. 내가 선교지로 갔을 때의 내 나이는 남들이 돌아오는 나이였다. 가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늦게 보내셨어요?” 라고 물었었다. 선교 나가기 1년 전 함께 선교사로 나가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던 남편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고, 시어머니도 내가 파송받고 나가기 1개월 전에 천국에 보내 드릴 수 있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오랜 기간 기도했음에도 내가 나가려고 했던 그때 나갔었다면 남편의 구원도 없었을 터였고, 20여년간 모신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갈 뻔했다.

또한 신학생 시절 서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며 그곳은 선교사도 많지 않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전공한 나는 당연히 거기로 가야 한다고 믿고 선교 정탐까지 다녀오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곳이었지만 나를 케냐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셨다. 처음 케냐 땅에 도착한 나는 날씨가 너무 좋아 놀랐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지이다.



[글쓴이 윤경환 선교사]



우간다, 동아프리카 WICC 담당

기도제목

1)가정

♥ 주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 ♥ 현재 사는 곳의 2층 공사가 시작되어 1층과 2층을 쓸 수 있도록
- ♥ 안식월(12/13-7/31) 은혜 가운데 잘 보내도록

- ♥ 남동생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윤대환(윤희중), 윤세환(김명숙, 윤예은)의 가정 회복
- 2) 사역
- ♥ 감사: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고 문이 닫혀 만나지 못했던 학생들과 책 수정팀을 만나 격려하게 하심
- ♥ 2025년까지 우간다 현지화를 위해 지혜를 구하며 협력 선교사(이상덕, 김유신), 현지 선교사들, 인도자들과 좋은 연합을 이루고 우간다 현지화 비전과 계획을 잘 세워 갈 수 있도록
- ♥ 루간다어 교재 DPM 7권 (원투원, 막, 갈, 롬, 그삼, 제자론, 전도론)이 인쇄되어 우간다 전역에서 왕성하게 사용되도록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카라바조, 1609-1610, 125x100 캔버스 유채, 이탈리아 로마 보르게세(Galleria Borghese) 미술관)

카라바조가 다윗과 골리앗을 그린 작품 3개 중 마지막에 그린 것으로, 강렬한 색의 대조와 빛의 초점은 카라바조가 새롭게 만들어낸 표현 방식이다. 다윗의 얼굴 중 반은 빛에, 나머지 반은 어둠에 묻혀 있고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환희가 보이지 않는다. 목이 잘린 골리앗의 표정은 죽은 자 같지 않다. 승리자와 패배자라는 극단의 상반된 모습을 자기 모습을 통해 표현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칼에 새겨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35년 주해>가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점과 살인 혐의로 도피한 직후에 그린 작품이라는 작가의 배경이 그림의 분위기 이해에 도움을 준다. 골리앗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은 승리를 위해 패배도 감당해야 한다.

---

BEE 소식

---

1. 2022년 “일상을 넘어 풋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위드 코로나와 변화된 방역지침에 따른 일상, 하나님의 날개로 BEE 가족을 안아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2022년도 상반기 OBA와 심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을 견고케 하는 세미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